

2021. 10. 15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1년 10월 1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

역사문화재과장	이 희 숙	2133-2610
역사문화재정책팀장	신 혜 숙	2133-2612
담 당 자	김 아 라	2133-2615
관련 홈페이지	https://culture.seoul.go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: 4쪽

한글날과 함께하는 이달의 서울문화재

서울 10월의 문화재는 “훈민정음·이유탉 한글영비·말모이 원고”

- 매월 15일, 해당 월과 관련 있는 문화재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소개
- 서울의 문화재 알리고,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 ‘2천년 역사도시 서울’ 가치 확산
- 시 누리집, 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·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

- 어느 때보다 세계적으로 한류와 함께 한글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, 575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자 ‘한글’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자 10월의 서울문화재로 훈민정음의 한문해설서인 ‘훈민정음’, 우리나라 묘비 중 한글을 쓴 최초의 묘비 ‘서울 이유탉 한글영비’,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‘말모이 원고’를 선정하였다.

1. 훈민정음

※ 국보(1962.12.20.)지정

- 우리나라 국보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‘훈민정음’은 1446년에 반포된 우리글 훈민정음의 한문해설서이다.
-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‘훈민정음’과 똑같이 ‘훈민정음’이라고도 하고,

‘훈민정음 해례본’ 또는 ‘훈민정음 원본’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별칭인 ‘훈민정음 해례본’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. ‘해례’는 풀어서 해설하고, 그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뜻으로 ‘훈민정음’은 우리글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예를 들어 기록한 책이다.

- ‘훈민정음’에는 훈민정음의 창제목적, 이유 등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으로 한글이 왜,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,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다.
- 500년 가까이 자취를 감추었던 ‘훈민정음’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고(故) 간송 전형필이 당시 10,000원(서울 기와집 10채 가격)을 주고 구입하여 세상에 알려졌고,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다.

2.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

※ 보물(2007.09.18.)지정

- 2007년 보물로 지정된 “서울 이윽탁 한글영비”는 노원구에 위치한 문화재로, 한글이 쓰인 우리나라 최초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.
- 이 비석은 이문건(조선 명종 때의 문신, 1494~1567)이 1536년에 아버지 이윽탁의 묘를 어머니의 묘와 합장하며 세운 묘비로, 비석 왼쪽 면에 “신령한 비다. 쓰러뜨리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. 이를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노라” 라는 뜻의 경고문이 한글로 적혀있다.
-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묘비에 한글을 적는 일이 매우 드물었던 당시, 한글 경고문을 작성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비와 묘역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효심을 엿볼 수 있고, 이를 통해 당시 한글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.

3. 말모이 원고




※ 보물(2020.12.22.)지정

-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사전인 ‘말모이’의 출간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인 ‘말모이 원고’는 2020년에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.
 - ‘조선광문회’가 주관하고 한글학자 주시경과 그의 제자 김두봉, 이규영, 권덕규가 참여하여 만든 ‘말모이 원고’는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집필이 이루어졌다.
 - ‘말모이’는 ‘말을 모아 만든 것’이라는 의미로 ‘사전’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본래 여러 책으로 구성되었을 것을 추정되지만 현재는 ‘ㄱ’부터 ‘갈죽’까지 올림말(표제어)이 수록된 1책만 전해지고 있다.
 - ‘말모이 원고’는 한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한 노력의 산물로, 현존 근대 국어사 자료 중에 유일하게 사전출판을 위해 남은 최종 원고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.

-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“10월의 서울문화재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우리글인 한글과 관련된 문화재로 선정하였다”며, “이번에 선정된 문화재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과 위대함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붙임 : 이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뉴스(10월) 선정목록

이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뉴스(10월) 선정목록

연번	문화재 (지정일)	선정사유
1	 <p data-bbox="304 819 475 929">훈민정음 국보 (1962.12.20.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사유 : 우리글 훈민정음의 한문해설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- 우리나라 국보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‘훈민정음’은 1446년에 반포된 우리글 훈민정음의 한문해설서이다. - 책이름을 ‘훈민정음’이라고도 하고, 해례가 붙어 있어서 ‘훈민정음 해례본’ 또는 ‘훈민정음 원본’이라고도 한다. - ‘훈민정음’에는 훈민정음의 창제목적, 이유 등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으로 한글이 왜,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,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다.
2	 <p data-bbox="261 1261 518 1370">이윤탁 한글영비 보물 (2007.09.18.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사유 : 한글로 쓰인 현존 최고(最古)의 묘비 - 이 비석은 이문건(조선 명종 때의 문신, 1494~1567)이 아버지 이윤탁의 묘를 어머니 묘와 합장하면서 1536년에 세운 묘비로, 비석 왼쪽 면에 “신령한 비다. 쓰러뜨리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. 이를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노라” 라는 뜻의 경고문이 한글로 적혀있다. - 한글 경고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비와 묘역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효심을 엿볼 수 있고, 이를 통해 당시 한글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.
3	 <p data-bbox="304 1709 475 1818">말모이 원고 보물 (2020.12.22.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사유 : 최초의 한글사전 ‘말모이’ 출간을 위해 작성한 원고 - ‘조선광문회’가 주관하여 한글학자 주시경과 그 제자인 김두봉, 이규영, 권덕규가 참여해 만들었다. - ‘말모이’는 ‘말을 모아 만든 것’이라는 의미로 ‘사전’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본래 여러 책으로 구성되었을 것을 추정되지만 현재는 ‘ㄱ’부터 ‘갈죽’까지 올림말(표제어)이 수록된 1책만 전해지고 있다. - ‘말모이 원고’는 한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 한 노력의 산물로, 현존 근대 국어사 자료 중에 유일하게 사전출판을 위해 남은 최종 원고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.